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

고창 고인돌박물관, 문화재청·전북도와 협의 진행

귀속문화재 관리규정 부합 조건 완비 후 최종 결정돼

고창 고인돌박물관이 2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귀속문화재'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 등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 중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인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고창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중앙관서인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고인돌박물관의 위임기관 지정에 따라 향후 고창지역의 발견 또는 발굴 문화재를 고인돌박물관에서 직접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재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문화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한층 더 기여 할 수 있게

됐다.

고창 고인돌박물관은 2018년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이후 고창지역 출토 매장문화재의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 전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또 수장고 리모델링 등 국가 귀속문화재의 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완비하고 이달 초 박물관 실사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유기상 군수는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 결정으로 단순히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물에 대한 분석과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특별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관람객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고창 고인돌박물관은 청동기시대 유물 및 생활상과 청동기시대 대표 묘제인 고인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돌 전문박물관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고인돌박물관이 2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고창 고인돌박물관 전경.



남원시, 드라마 '지리산'

제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 18일부터 남원 산내면에서 촬영에 들어간 드라마 지리산의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바람픽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환주 시장과 이상백(췌)에 이스토리 대표, 최호성 바람픽처스 본부장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1년 tvN에서 방영될 드라마 '지리산'은 광활한 지리산의 비경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미스터리물로, 전지현, 주지훈 주연, 전 세계가 주목한 좀비 사극시리즈 김민, 웰메이드 장르물 시그널의 작가 김은희와 미스터 셀사인, 도개비, 태양의 후예 등의 킴 이음복 감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남원시는 제작과 관련한 세트장 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작사 3사는 제작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번 드라마 제작을 통해 지리산의 중심도시인 남원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리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문화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

엔씨소프트 신규 게임 음악 제작 활용

전주대학교 김병오 연구팀(문화융합콘텐츠학과)이 개발한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이하 SW)가 엔씨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신규 게임 음악 제작에 활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김병오 연구팀이 개발 중인 국악 가상악기는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국악기의 다양한 주법 별 연주 음원 외에도 일정 마디를 반복해 연주하는 '국악용 루프 샘플'이 추가돼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을 재현해 냈다. 또한 풍부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능을 장착해 타 장르 뮤지션 및 일반인들의 국악 창작 접근성과 사용성을 향상시켰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 김병오 연구팀이 개발한 국악 가상악기 SW를 당사가 개발 중인 신규 게임의 음악 제작에 활용하고 가상악기 제품의 QA(Quality Assurance)와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내년 문화재청 공모

생생문화재 등 3개 사업 선정

진안군은 23일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2021년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과 '2021년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3건으로 국·도비 9400만원을 확보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진안성당 어른공소와 진안향교 대성전 일원에서 '1억 년 역사가 숨쉬는 진안, 마실 가져!'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향교104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진안향교와 용담향교를 활용하며,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진안 문화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일상의 삶속에 부딪치는 아픔을 말하다

극단 모레노, 26일 기억의 숲  
'플레이백 시어터' 즉흥연극

극단 모레노(염정숙 단장)가 주관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기억의 숲 '플레이백 시어터' 즉흥연극이 창작소극장에서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임무는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플레이백 시어터'란 스토리텔링과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연극 형식으로 텔러의 이야기를 배우가 즉석에서 재현하는 즉흥연극이다.

무대 중앙에 4~5명의 배우가 있고 무대 왼쪽엔 연주자가 여러 악기를 앞에 두고 있다.

무대 오른쪽엔 진행자가 앉아 있고 그 옆



시어터는 관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창조하고 함께 이해하며 치유하는 과정의 경험을 창조하는 힐링 연극이다.

공연출연진으로 몸짓배우에 흥명의, 김규영, 염정숙, 소리배우로 고통우, 이야기 배우에 관객이 나선다.

에는 빈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이 빈 의자는 관객을 위한 것이다. 관객 중 누군가 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출에 염정숙, 총기획은 류명희, 조명에는 유현진, 음향은 한지영, 무대는 이동화 등이 제작을 맡았다.

아울러 이번 공연의 홍보는 라진향, 진행은 김미경, 임지연, 이미리네가 담당한다.

극단 모레노 염정숙 대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누구였고 현재 누구이며 미래에 누구이고자 하는지를 결정한다"면서 "삶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찾게 하며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염 대표는 "관객들이 새로운 무대 패러다임을 선물처럼 받기를 바란다"며 "일상의 삶속에 부딪치는 아픔, 고통,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나, 너, 우리가 치유되는 모습 속에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 세상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좌석은 예약자순으로 30명까지 제공하고 전석 무료 공연이다. /유호성 기자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다자녀와 출산 직원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와 출산 직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3층 회의실에서 자녀 3명 이상인 재직직원 2명과 자녀출산 직원 1명에게 대표이사 감사 인사와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올해 재단에서는 워킹맘·대디를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위해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난임 치료 휴가 유급확대, ▲임신직원 휴게시간 부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통해 워킹맘·대디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려풀 전북'은 전북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와 출산 직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익산교육지원청, 학생 평화통일 영화제 통일부에 방송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학생 평화통일 영화제를 관내 초·중·고 40여명을 두 팀으로 나눠 각각 한편씩 두 편의 통일영화를 지난 8월 7일, 17일 제작한 내용이 통일부 통일소식과 KBS라디오 통일열차 프로그램에 방송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생 평화통일 영화제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시나리오 제작과정에서부터 촬영, 감독, 배우, 스태프 등에 직접 참여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주제로 한 '갑순'이라는 영화와, 남과 북이 통일된 상황



을 가정해 남쪽의 한 부모 가정과 북쪽의 한 부모 가정이 결합해 한 가정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슬기롭고 현실감 있게 풀어낸 진정한 가족을 이룬다는 '1+1'로 각각 10여분 가량의 영화를 제작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감염예방과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준수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학생 평화통일 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접한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일소식의 통일영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인터뷰와 완성된 통일영화 2편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아리랑 TV, KTV에도 방송했으며, KBS 라디오 통일열차의 서울통신 현장! 통일 속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했던 미래 통일세대 학생들의 생생한 참여 활동기와 두 편의 통일영화 제작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은성 기자



## 비대면 한국문화 체험

태권도진흥재단

'온라인 K-STAY'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세종화당재단(이사장 강현화)·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과 함께 태권도와 한지공예·한식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 (이하 K-Stay)를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참가 희망 외국인을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모집한다.

'K-Stay'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고유의 가치를 전하는 체험형 사업이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 연령과 국적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세종화당재단·아시아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을 참고하면 된다.

2020년 'K-Stay'에서는 기본기술과 호신술, 태권체조 배우기 등의 태권도 체험과 부채 만들기 등의 한지 공예, 전주 10미 강의와 한국 음식을 만드는 한식 체험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는 각 프로그램 영상을 제공하고 영상에 있는 과제를 완료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특히, 우수 참가자에게는 작품 공개의 기회와 특별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마음을

채우는 쫄림의 인문학' 내달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은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마음을 채우는 쫄림의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문학, 인문, 역사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회관 2층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마음을 채우는 쫄림의 인문학'은 특정 주제의 명사를 초청, 소통과 배움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0월 7일 나시태 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이봉희 명예교수의 '내 마음을 만지다-글쓰기문학치료'를 시작으로 인문, 역사 분야 주제를 포함해 12월까지 강연이 펼쳐진다.

무번개 주제는 인문으로 '전주, 태리지'를 주제로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의 신정일 문화사학자의 강연과 이어서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교육연구소의 양진호 강사의 '그리스·로마 문명을 다시 본다'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참여는 학생 및 학부모 30여명 선착순으로, 회관 누리집 온라인접수나 당일 현장 접수로 받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모든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